

보도 일시	즉시 사용	배포 일시	2022. 7. 1.(금)	
담당 부서 <총괄>	경제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	책임자	과 장	우향제 (044-200-2211)
		담당자	사무관	안혜리 (044-200-2227)

한덕수 국무총리, 주한미국기업 대표단 만나 투자 주도적 성장을 위한 적극적 협조 요청

- 투자지원대책, 한미 전략적 파트너십 등 현안에 대한 의견 공유 -
- 주한미국상공회의소·주한미국기업의 적극적 투자와 협조 요청 -

□ 한덕수 국무총리는 7월 1일(금)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주한미국 기업과의 간담회에 참석하여, 한미간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주한미국기업의 적극적 투자 확대와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.

* (참석) ▲(방문기관)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, 안익홍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이사회 의장, 주한미국기업 대표단 등 150여명 ▲(정부)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, 국무총리비서실장,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등

○ 이날 간담회는 최근 정부가 투자애로 및 규제개선 등 투자 주도형 성장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국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고, 한미 투자·교역 등 경제협력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

□ 한 총리는 이 자리를 통해 주한미국기업 대표단에게 그간 한국 내 투자 활동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고, 앞으로 더 많은 협력을 당부하는 한편

○ 한미관계 및 공급망 협력, 외국인투자기업 지원방안,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, 기후변화 대응 등 최근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.

□ 한 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투자 증진을 위해 외국인직접투자자들과 함께 힘을 합하여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 이라고 하면서, 규제 개선 및 인력 양성 등을 통해 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.

- 우선 한 총리는 앞으로 민간과 시장, 기업에 중심을 둔 경제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면서, 보다 과감하고 강력하게 규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.
 - 이를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투자활동과 관련된 모든 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하면서, 외국인투자기업인들이 겪는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언제든지 직접 활발히 소통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.

- 또한 한 총리는 현재 한국 정부는 인재 교육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고 하면서,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에 있어서 인력 양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
 - 또한 투자주도 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조세·노동 분야 등 투자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가능한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.

- 마지막으로 한 총리는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총요소 생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,
 - 이를 위해 노동·기업·정부 부문 등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.

-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, 투자애로 해소 및 규제완화 등을 통해 민간기업의 투자 확대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.